



보도 일시	2022. 9. 30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 07:00
담당 부서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이성글 (044-204-2861)
		담당자	사무관 조민경 (044-204-2877)

국세청장,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
- 디지털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-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2022. 9. 28.(수) ~ 9. 30.(금)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.
-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(IMF) 및 세계은행(WBG)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행정 운영방향,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, 국제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
- 특히,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,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.
- 김창기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「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」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후, 이를 「한·호주 국세청장회의」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.

1 회의 개요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2022. 9. 28.(수) ~ 9. 30.(금)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.
- OECD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올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.
-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, 이번 회의에는 미국·캐나다·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(IMF)·세계은행(WBG)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.

【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】

- (명 칭)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Plenary
- (목 적) 조세행정 운영방향 및 회원국 간 공조방안 논의
- (회원국) 총 52개국 (OECD회원 37개국, 비회원국 15개국)

호 주	코스타리카	홍 콩	케 냐	노르웨이	남 아 공
오스트리아	체 코	헝 가 리	한 국	페 루	스 페 인
아르헨티나	덴 마 크	아이슬란드	라트비아	폴 란 드	스 웨 덴
벨 기 에	에스토니아	인 도	리투아니아	포르투갈	스 위 스
브 라 질	핀 란 드	인도네시아	룩셈부르크	루마니아	터 키
캐 나 다	프 랑 스	아 일 랜 드	말레이시아	사 우 디	영 국
칠 레	독 일	이스라엘	멕시코	싱가포르	미 국
중 국	조 지 아	이탈리아	네덜란드	슬로바키아	
콜롬비아	그 리 스	일 본	뉴질랜드	슬로베니아	

- (개최방식) '21년부터 매년(기존에는 18개월 주기) 순환 개최
- (한국참여) '04년 가입, '06년 개최

-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OECD가 국제조세체계 정립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.

2 회의 내용

- 이번 OECD 국제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**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행정 운영방향,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, 국제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**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먼저, 각국 국제청장들은 **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행정 운영방향 및 납세자 지원방안**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.
 - 각국 청장들은 **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 상황에서의 업무연속성 (Business Continuity) 확보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서 기반**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 - 김창기 국제청장은 **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**
 - **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, 보고서 없는(paper-less)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,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**
- 또한, 각국 청장들은 **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**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
 - 김창기 국제청장은 **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,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**하였습니다.
- 각국 청장들은 **국제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제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**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.
 - 김창기 국제청장은 **앞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**

3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

- 김창기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 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들을 초청하여 「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「한·호주 국세청장회의」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호주 과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.
- 또한 회의 기간 중 미국·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

【사진설명】

1. 김창기 국세청장이 「호주진출기업 세정간담회」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
2. 김창기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(밥 해밀턴, Bob Hamilton) 및 주최국 국세청장(크리스 조던, Chris Jordan)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